하나님의 첫인상

(룻기 1:12~18)

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18.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첫인상>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첫인상'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새 학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학년 첫 번째 시험으로 1학기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 있고 못 나오는 학생이 있을 것인데, 첫 번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낸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고 합니다. 중간고사를 잘 보았지만 기말고사를 못 본 학생과 중간고사는 못 보았는데 기말고사를 잘 본 경우에 선생님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는지 혹은 몸이 아팠는지 등에 대해 생각을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혹시 커닝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첫인상에서 사람들이 갖는 경향을 심리학에서는 “일관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첫인상을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대상을 바라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해석하려는 경향을 갖는 것입니다. 첫인상이 좋았던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첫인상이 좋지 않았던 사람은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일관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원래 좋게 여겼던 사람이 좋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너그럽게 평가하고, 좋지 못한 첫인상을 가진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에서도 그대로 작용합니다. 일관성의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첫인상이 그 이후의 하나님과의 관계인 신앙생활 전체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첫인상은 나 자신이 선민이냐 아니냐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하나님이 올바르게 전달되었느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바르게 전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첫인상이 같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전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하여 잘못된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소개 받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첫인상을 통해 선민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모압 여인 룻이 선민 공동체 안으로 영입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이 모순되는 것일까요?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은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나 몰렉 우상을 섬기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므로 여호와의 총회와의 연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민족적 국가적 단계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구약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길이 열려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이 영입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으로서 여자는 신앙고백을 통해서 선민으로 영입될 수 있었고, 남자는 신앙고백과 더불어 할례의식을 통해서 영입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압 여인 두 명이 유다 지파에 속한 한 집안의 며느리들이 됩니다. 룻과 오르바인데 이들이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룻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였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족보 안으로 들어오는 선민이었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 선민으로 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혈육 상의 선민만이 선민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민으로 선택받은 혈육상의 선민들은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사사 시대에는 이스라엘 약속의 땅 안에서 육체적 선민으로 살면서

도 포기되어진 자가 많았는데, 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악행을 범하고 있을 때에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룻이 선민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20세기의 교부 칼 바르트 신학자는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을 '모차르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음악에 많은 영감을 받고 신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이 기생 라합과 룻입니다. 천국에 가면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영화로운 몸을 입은 영적 존재들이지만 인격은 유지될 것입니다. 그 때에 기생의 몸을 입고 있었던 라합의 인격체와 룻의 몸을 입고 있었던 모압 여인 인격체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룻과 오르바가 전혀 다른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 공통적으로 만나고 접하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재물을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 것으로 믿고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에 남편과 아들과 재물은 여자가 생존과 행복을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여자들이 독립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르지만 남편과 자식과 재물의 비중은 그때나 이때나 막중합니다. 그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것을 보았고 이처럼 불운한 상황과 함께 소개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며느리가 받은 첫인상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서 이방 세계로부터 선민의 세계로 들어오는 자와 못 들어오는 자가 확연하게 구분됩니다. 저주받은 모압 족속으로부터 선민의 세계로 들어오는 과정을 나오미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이 불운해 보이는 시어머니의 상황을 접한 동서 오르바가 갖게 된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살펴봅니다. 오르바가 돌아갔을 때에 나오미가 룻에게도 돌아가라는 권면을 하면서 15절에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고 합니다. '신들'은 그모스와 몰렉 같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친정이나 고향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면서 암시하는 것은 오르바가 하나님에 대해 받은 첫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르바가 볼 때에 '시어머니의 하나님 여호와는 불길과 저주와 인생의 불통과 연관이 되어, 여자에게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는 분'이라는 첫인상을 갖게 됩니다.
오르바가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마음으로 시어머니에게서 일어난 상황은 자신의 마음과 대치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시어머니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르바는 불행을 당한 시어머니를 혼자 두기 마음아파서 함께 동행 했지만 시어머니가 강권하자 못이기는 체 돌아갑니다. 착하고 인간적이고 의리가 있었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선민임이 확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나오미로부터 소개 받은 여호와 하나님의 첫인상은 어땠을까요?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시어머니로부터 남편과 두 아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가셨음은 오르바와 마찬가지로 경험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르바는 시어머니가 잃은 것들에 주목한 것에 비하여, 룻은 시어머니에게 주목하는데 그 당시의 여자의 행복과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을 다 빼앗아 가신 여호와 하나님을 왜 붙드는가에 주목했던 것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많은 신들이 얼마든지 널려있고 그러한 신들을 숭배하는 이방 땅에 이민을 와서도, 고향 땅에서 믿던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시어머니의 태도에 주목하고 이러한 시어머니의 태도로부터 하나님의 첫인상을 받습니다.

한 여자에게서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빼앗아간 존재라면 우리 식으로 철천지대원수입니다. 나오미의 고백대로라면 '여호와가 고통을 주셨고, 여호와가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고, 여호와가 재산을 빼앗아 가셨다'고 하면서도 여호와를 놓지 못하는데,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다 빼앗아 가시는데도 그 하나님을 놓지 못하고 붙잡는지에 대해 룻이 첫인상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기에 소중함에 있어서 남편을 이기고 자녀들을 이기고 재산을 이기시는지를 바라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남편이 없어져도 붙잡아야 될 분이고, 자녀가 없어져도 붙잡아야 될 분이고, 재물이 없어져도 붙잡아야 될 분으로서 하나님만 가지면 살 수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그 분만은 있어야 하고 그 분만은 붙잡아야 한다는 첫인상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암시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마음으로 붙잡은 소중한 것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룻이 소개 받은 하나님의 첫인상은 의지할 만한 세상 것을 다 가져가신 후에 당신 자신을 주시는 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으로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룻의 경험 속에서의 이 구절의 신앙고백을 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시어머니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앗아간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라는 고백이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시어머니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가졌습니다.

사실 나오미가 처음부터 하나님만을 붙잡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기근 때문에 모압 땅으로 이주했다'는 것과 '풍족한 가운데 나갔다가 비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근거로 유추해 보면 요즘 말하는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투자 이민을 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고, 내게 소중한 남편과 자녀와 재산을 기근 속에서 유지하기 힘들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바로 서게 하시기 위해서 남편을 데려가시고 두 아들을 데려가시고 재물을 몰수하실 때에 하나님을 굳건히 붙들게 됩니다. 저 같았으면 고향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창피해서라도 못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말해주는 바는 하나님은 당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기 전에 마음속에 좋아하며 의지하는 것들을 다 빼앗아 가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인상이 되어야 하고, 전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뺏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데 당신도 붙잡으십시오.'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마음으로 좋아하던 것들을 하나님 믿으면 더 많이 주실 것이라고 첫인상을 고정시키면 그렇게 전도 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길에서 차단되어 버리고 맙니다.

나오미의 삶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이 땅에서 최고로 여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분'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갖기 위해서는 나오미가 다 잃었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통해서 마음에서 그것들을 다 잃어야만 하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첫인상은 당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다 잃게 하시는 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첫인상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각오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선민이 아니기 때문이고, 받아들인다면 나의 훌륭한 의지와 결단의 작용이 아닌 선민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은총 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야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갖겠다고 이 땅에서 내게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나 있겠으며, 그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선민일 때에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첫인상을 어떻게 가지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나오미와의 차이점은 나오미는 물리적 차원에서 남편과 두 아들과 재물을 다 잃고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그 동안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머물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복음을 통해 그 모든 것들에 대해 온전히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식과 아내와 재물과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 채로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 그것들은 내가 좋아해서 갖는 소원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전부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계 맺게 되고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당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만나기 전에 좋아하며 마음에 붙잡

고 있었던 어떤 것도 실오라기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는 분이심을 하나님의 첫인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갖기 위해서 십자가를 생활화 할 수 있을 때에 선민으로서의 복된 길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첫인상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첫인상에 입각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